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0호 【루계 제26214호】 주체107(2018)년 12월 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로씨야 나호트까 포르마트출판사에서 11월 2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의 전문을 발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가 11월 3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 탄자니아위원회가 11월 24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 프란씨스 에프. 리모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산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련합회고위원회가 11월 26일에 결성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위원장인 모즈고보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고위원회는 끼르기즈스딴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아제르바이잔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의 인사들을 망라하고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26일 전로씨야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 제1비서 보드조로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이 함주군 구상협동농장, 북청군 경안과수농장, 정평군 룡성협동농장에 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차례나 함주군 구상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농장에 오시여 현대적인 문화주택과 공공건물들을 규모있게 건설하여 리를 리상촌으로 꾸리기 위한 귀중한 카르치심을 주시였다.

북청군 경안과수농장에도 농업근로자들을 농사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수업과 축산업을 비롯한 다각경리를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의 로고속에 정평군 룡성협동농장은 농산과 축산토대를 튼튼히 갖춘 농장으로 전변되였다.

수동구 선성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천만년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주인된 자각을 안고 다음해 농사차비전투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화상회의를 열고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이 다음해 농사차비전투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전투분위기를 잘 세우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논밭갈이와 자급비료생산, 모판자재확보 등 농사차비전투를 벌려나가는데서 시, 군당조직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봉산군당위원회에서는 농사차비를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도록 한데 기초하여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군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을 발동시키면서 농사차비전투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내도록 하고있다.

전투장들이 불붙는 가운데 군에서는 지난 11월 27일까지 논밭갈이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탄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농사차비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에 집중하고 사상공세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단위들을 적극 소개선전하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까지 모판자재가 화보된것을 비롯하여 농사차비전투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사리원시당위원회에서는 농사차비전투에서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잘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하는 한편 단위별, 개인별 작업실적을 놓고 특성에 맞는 선전선동사업을 창신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논밭갈이를 이미 해제낀데 이어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장풍군당위원회 일군들도 전투장마다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활기있게 벌리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농사차비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온파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거름더미이자 쌀더미라는것을 잘 알고 자급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펴기있게 진행하고있다.

군안의 당초급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도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자급비료생산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밖의 시, 군당조직들도 농업근로자들을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맹활약하고있다.

결과 도당위원회에서 조직한 화상회의가 있은지 한주일동안에만 하여도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채취기계공업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채취기계공업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와 채산철도분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확대하며 계속전진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채취기계공업국에서 지난 11월말까지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1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채취기계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기 위해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탐구동원하였다.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올해 뽐프생산계획을 9월초까지 지표별로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각종 뽐프생산에서 혁신의 기상을 떨치고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뽐프의 집개선에서 의의를 가지는 연소모형에 의한 주물품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장산전기공장에서도 세차게 타번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와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대상설비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새형의 능률높은 300hp권양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완성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전천착암기공장과 회령탄광기계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도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혜산철도분국에서

혜산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년초부터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려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분국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분국의 일군들은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집화보상대에 맞게 기관차, 화차들을 해당 역들에 제때에 보내주어 목적지에 지체없이 도착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화물취급량이 많은 혜산청년역, 위연청년역, 포평청년역에서의 차넣기와 끌어내기를 신속히 진행하여 화차회귀일수를 최대한 줄이였다.

위연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화물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수리부문의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합리적인 지구들을 창안제작하고 부속품가공을 앞세워 기관차수리정비의 질과 속도를 훨씬 높이였다.

기관차승무원들은 표준운전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운행중점검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매일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였다.

위연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화차수리전투를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화차수리에 받아들여 련일 위훈을 창조하였다.

지금 혜산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물관리를 잘하여 더 많은 전력을

원산군민발전소에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물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 발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해전 12월 몸소 완공된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여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발전소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는 한편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게 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올해에만도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사이에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잠을수 있게 도중취수구를 건설하여 년간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예비를 조성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근 20건에 달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1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엄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종전보다 1, 2배이상 늘이고있다.

2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언제와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을 위발침해주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전력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과학기술의 힘으로 버섯을 증산

각지 버섯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각지 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버섯생산에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류경버섯공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발전에서 찾은 일군들은 원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사업과 함께 기술학습을 짜고들어 버섯비배관리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특히 멸균로에 공기소독장치를 설치하고 기질랭각시 무균화된 공기를 주입하여 오염률을 현저히 낮추었다.

공장에서는 온실재배장들에 덮김정버섯품종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온실의 년중 온도조건에 맞게 계절별 여러가지 품종재배를 과학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해주버섯공장에서는 원가를 낮추면서 더 큰 실리를 얻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버섯바구니사출기를 만든 경험에 기초하여 이동식소형장냉이속분쇄기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함으로써 종전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그 능력을 높이였다. 또한 소독에 나노살균제를 리용하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많은 버섯을 생산하였다.

정방산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목화씨껍질을 리용하여 버섯생산을 늘일수 있는 리상적인 대용기질혼합처방을 찾아내여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도에 흔한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는 다기능영양강화제를 새롭게 창안제조하여 종균생산으로부터 재배에 이르기까지 널리 리용하였다.

다른 버섯공장들에서도 당의 뜻대로 증산의 방도를 과학기술에서 찾아쥐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많은 버섯을 생산하였다.

본사기자 김강철

은산군 읍지구에 수백세대의 살림집 건설

지난 1일 은산탐사기계공장의 종업원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은산군 읍지구에 일떠선 4층, 5층의 살림집들에는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등이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있다. 살림집구역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근 20종에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어 풍치를 돋구고있다.

줄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에 보금자리를 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당에서는 은산탐사기계공장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을 건설하여 그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었다.

국가자원개발성의 책임일군들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를 꾸리고 돌격대력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워나갔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수십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건설해야 하는데 맞게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사지휘부일군들과 각 도탐사관리국에서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지대정리와 기초굴착을 다그쳤다.

성에서는 삼차와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어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은산탐사기계공장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지대정리와 기초굴착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황해남도탐사관리국의 돌격대원들은 작업준비를 앞세우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벽체축조작업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여 두개 호동의 살림집건설을 제일먼저 끝내였다.

평안남도탐사관리국과 중앙물리탐사단의 돌격대원들은 내외부미장과 타일붙이기작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한㎡의 미장을 하고 타일을 붙이여도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은산탐사기계공장의 돌격대원들은 어려 호동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진동타짐기를 만들어 보도블로크를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가자원개발성 아래 각 도탐사관리국 돌격대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살림집주변의 도로를 번듯하게 닦았다.

국가자원개발성 직속단위의 돌격대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질보장에 전심전력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와 도인민보안국에서는 새집들이에 필요한 운수수단을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심장에 새겨안고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킬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특파기자 오철훈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고 김철만동지의 장의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만동지의 장의식이 5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되였다.

장의식장인 서장희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참된 전우, 조선로동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한생을 값높이 빛내인 항일혁명투사 김철만동지와 영결하는 슬픔에 휩싸여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고인의 유가족들, 당,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고 김철만동지의 령구가 발인되였다.

고인의 령구를 실은 차는 수도의 거리들을 지나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인 김평해동지, 태종수동지, 최부일동지, 최휘동지, 노광철동지, 리병철동지, 김능오동지가 고인의 령구를 맞이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영결식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령구를 향하여 《령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최룡해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유가족들이 흙을 덮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묘에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언제나 충신의 한모습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온 고 김철만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한생 충대를 틀어쥐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김철만동지의 고귀한 삶과 투쟁공적은 우리 당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존경하는 항일의 로투사인 김철만동지와 커다란 슬픔속에 영결하게 됩니다.

백두산의 전설적장군을 만나뵙고 참군열의로 끓는 심정을 절절히 아뢰이던 지양개등판의 10대 소년시절부터 한생 충대를 틀어쥐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김철만동지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사회주의강국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김철만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성스러운 행로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로혁명가를 잃은 커다란 슬픔과 애도의 정이 북받쳐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김철만동지의 생애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하여 값높은 삶을 누려온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량강도 운흥군의 빈농가에서 태어나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감수해야만 하였던 김철만동지는 1937년 여름 나어린 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대오에 용약 탄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병총보다도 작은 키에 왜놈을 치겠다고 빨찌산을 찾아온 김철만동지의 기개를 장하게 여기시며 그를 비롯한 소년들로 소년중대를 조직하시고 그들모두를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불굴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김철만동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고백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소년중대에 받아들여 친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보살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막바지농사군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일제의 말굽밑에 짓밟히고말았을것입니다.

동지는 우리 혁명력사에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으로 뚜렷한 자욱을 새긴 오중흡7련대에서 전령병으로 활동하면서 높은 책임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시기에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정치공작과 정찰활동을 과감히 벌리였습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속에서 정규군사교육을 받고 어엿한 조선인민군 지휘관으로 성장한 김철만동지는 군인들속에 항일빨찌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철같은 규률, 영웅적투쟁기풍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단련된 김철만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담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동지는 조선인민군 련대장, 부사단장으로서 전선천리, 적후천리를 종횡무진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명령을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였습니다.

전후에도 김철만동지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대련합부대들의 군사지휘관으로 사업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며 일당백의 기치높이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길에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습니다.

혁명가로서의 신념과 자세가 투철하고 언제 한번 자신을 내세울줄 모르는 과묵하고 고지식한 전사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가슴뜨거운 추억의 페지들을 남기시여 김철만동지의 남다른 투쟁기질과 공로에 대하여 온 나라가 다 알고 후대들도 본받도록 내세워주시였습니다.

항일의 로투사로서의 김철만동지의 영광스러운 인생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충정의 한길에서 언제나 한모습인 김철만동지를 굳게 믿으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인민보안기관, 군수공업부문의 책임적인 직무들을 거듭 맡겨주시였습니다.

김철만동지는 주체61(1972)년 4월의 봄날 태양의 성지 만경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오중흡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한생을 빛내이겠다고 굳게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를 백옥같은 충정으로 받들었습니다.

동지는 인민군대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치였으며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고 국방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공헌하였습니다.

한생 충대를 틀어잡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김철만동지의 마음속소원을 헤아리시여 새 직무에서도 혁명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사업하도록 커다란 신임을 베풀어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서 김철만동지는 오래동안 군수공업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당과 혁명앞에 많은 공로를 세울수 있었습니다.

김철만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로당익장하면서 혁명전사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으시며 동지의 사업과 생활, 건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였으며 자손들도 대를 이어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고무격려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철만동지의 서거를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장례를 국장으로 하도록 하시고 동지의 령전에 친히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고 만신상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김철만동지가 수여받은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공화국2중영웅칭호와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급의 표창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여온 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공로에 대한 증표입니다.

참으로 김철만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의 첫걸음을 뗀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의 견실한 혁명가, 로동당의 충직한 투사로 굳세게 싸워왔으며 이로 하여 오늘은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김철만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김철만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동지가 세운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입니다.

고 김철만동지여!

고이 잠드시라.

주체107(2018)년 12월 5일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혁명동지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동지애의 세계를 펼치시였다.

수십년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서던 일군은 걸음을 멈추었다. 록음기에서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려나오고있었던것이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인 《동지애의 노래》였다.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방해될가 저어하며 일군은 그자리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런 속에 일군도 노래에 심취되였다.

잠시후 노래가 끝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시선을 주시며 《동지애의 노래》는 명곡이라고, 이 노래는 들을수록 더 듣고싶은 좋은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동지애의 노래》가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당의 령도를 따라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을 얼마나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나직한 음성이 또다시 일군의 귀전을 울리였다.

세상에는 노래가 많다. 그러나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10년, 20년 아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낡지 않고 계속 불리우는 노래는 많지 못하다. 한때 아무리 사람들을 매혹시킨 노래, 세인을 격동시킨 노래라 하여도 세월의 락엽이 두터워지면 그속에 묻히기마련이다. 허나 세월의 눈비에도 씻기우지 않으며 년대와 년대를 오선지상이 더욱 높이 울려퍼지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혁명의 노래이다. 《동지애의 노래》는 바로 그런 혁명의 노래이다. …

마음이 격동되신듯 자리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가 왜 이 노래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이 노래가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혁명의 방식으로 되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겨안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였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시며 노래에도 있듯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라고, 동지라는 말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사이에 부르는 말이라고, 동지적관계야말로 인간들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세찬 흥분에 휩싸였다.

진정 동지라는 말은 정녕한 말이 아니였다.

동지! 그 부름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동지애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천만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가 노래의 선률과 함께 일군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오늘도 《동지애의 노래》는 천만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며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우리의 혁명진지를 더욱 강화하시던 나날에

가장 위력한 무기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였다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신념과 의지가 빛발치는 참으로 뜻깊은 순간이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필승의 무기이며 무적의 성새라고 강조하시였다.

천만군의 무게가 실린 그이의 카르치심에서 일군들은 일심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임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하늘땅 끝까지

수십년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였다.

도로에는 발구와 손달구지 등에 거름을 가득 싣고가는 사람들이며 배낭에 거름을 넣어지고가는 사람들이 꼭 들어서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견인불발의 의지가 한껏 넘쳐있었다.

차창밖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강도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고, 생각같아서는 차에서 내려 인민들과 함께 걷고싶지만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되고 시간적여유가 없는것이 유감이라고 하시면서 저런 인민들과는 하늘땅 끝까지라도 함께 갈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령도자는 인민과 함께 하늘땅 끝까지,

인민은 령도자를 따라 하늘땅 끝까지,

진정 이 혼연일체는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며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꿋꿋이 전진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훌륭한 인민이라 하시며

주체91(2002)년 5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감격에 흐느끼며 노래를 부르는 출연자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령도자를 하늘처럼 믿고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긴 인민, 령도자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신념을 지닌 우리 인민의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헤아려보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오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보면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군인가족들의 순결한 마음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지였다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이런 훌륭한 인민이 있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렇다.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내세우며 인민은 령도자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언제나 승리하여왔으며 앞으로도 필승불패할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전략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우리 당이 무강조국건설에서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투쟁전략이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면 생산과 건설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생산과 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생산과 건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전진속도가 결정된다.

현시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힘의 강약과 리기적목적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좌우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남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 당은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설 때마다 그 어떤 외부적지원에 기대를 건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열,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경이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여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전후 제대미우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한 원천이였고 로동당시대의 입대 건성기를 펼친 추동력이였으며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낀 보검이였다. 우리 공화국의 전력사적로정에 관통되여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

우리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며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위력한 무기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강도적인 제재봉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정치군사적압력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여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인민들의 혁명정신, 투쟁의지를 꺾자는데 원쑤들의 제재책동의 주되는 목적이 있다. 적들은 지금 제재를 극대화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우리의 명줄을 틀어쥐고있는듯이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제금적자존심이 강한 우리 인민에게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적들이 아무리 단말마적발악을 하여도 막강한 경제적잠재력과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기에 주체조선은 끄떡없다. 우리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생산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줄기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욱 뚜렷이 확증되는것이 자력갱생의 생활력이다. 오늘의 조건과 환경은 사람들속에 남아있던 남에 대한 의존병, 수입병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우리의 자강력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과 튼튼한 기계공업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도처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런 투쟁기풍이면 우리에게 풀지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은 우리 조국이 가장 빨리 발전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지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고있으며 발전된 나라들과 뒤떨어진 나라들간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있다. 우리가 경제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자면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 우리 식의 발전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는데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은 우리의 제일 값비싼 재부이고 자원이다.

남의 힘과 기술, 남의 자원에 의거하여서는 절대로 남의 발전속도를 따라앞설수 없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정신에서 남들이 깔아온 수십년을 단숨에 비약하는 개발창조의 지혜와 보술도 나오며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자체로 만들어내는 과감한 창조기풍, 투쟁본때도 발휘되게 된다.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온 사회에 차넘치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은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우리 조국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끊임없이 강성번영할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열어놓고있다.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이 마련해놓은 자립적경제토대와 잠재력은 막강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당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지금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이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강원도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 전기력을 단단히 보고있으며 지방공업공장들의 토대를 강화하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고있다. 강원도야말로 자력갱생의 위대한 동력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쳐 돌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축도라고 말할수 있다. 강원도에 나래치고있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이 온 나라에 일반화될 때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것이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갖출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다.

혁명가적풍모는 실천투쟁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혁명적신념, 물과 공기만 있으면 기어이 살아 일떠서는 강의한 생활력,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려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락원을 세우겠다는 배짱, 이것이 자력갱생의 강자들이 지닌 고유한 투쟁정신이고 기질이다. 오늘 우리 당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든데는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특히 새 세대들을 불굴의 혁명가, 참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길은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제배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 한치도 걸을수 없는 간고한 생눈길이다. 이 길은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리기주의, 본위주의, 공명주의, 요행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병집을 불사르고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 한길에서 굳게 단결하여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이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 나래칠 때 필승의 신념을 지닌 정신력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의 대무대는 날로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며 우리 혁명진지는 더욱더 튼튼해지게 될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진도상에는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여온 자력갱생의 위대한 전통이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일떠서는 불굴의 인민이 있기에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만이 살길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룡

김 영 남 동 지 가

타이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방코크

타이왕국 국왕

마하 바지라롱콘 보딘드라데바야바랑쿤페하

나는 타이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폐하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2월 5일 평 양

당건설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우시군 가하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 ㄷ》를 결성하시고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해방후 주체형의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에 대한 해설선전사업도 적극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그의 해설을 들으면서 농장원들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곳 농장원들은 대대로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면한 영농전투에 더욱 분발해나서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창 률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올해에 당사업의 위력 힘있게 과시

일심단결로 백승을 떨쳐온 자랑찬 투쟁의 해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한 올해는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따르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쳐온 긍지높은 해였다.

흘러온 한해를 돌이켜볼수록 일심단결이 있기에 주체조선은 앞으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할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뿌듯해진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에 두려울것이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 뜻깊은 올해 천만군민이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아박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입니다.》

일심단결로 승리하고 비약해온 격동의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올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북청군 룡전과수농장, 단천시 명산협동농장, 함흥남새전문농장, 청진키초식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끝까지 걸어갈 불굴의 의지를 더욱 가다듬도록 하였다.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될 때 일심단결이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강원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을 열혈충신들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

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조직적전일체,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강화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사상론을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렸다.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2월초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까지 몸소 타보시면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더 훌륭히 완성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도려객운수국의 당책임일군들은 몸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이 준 과업을 기어이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로 떨쳐나섰다. 조건이 어렵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당조직을 움직이고 대중을 발동하면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갔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만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식의 맷쟁이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생산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수도려객운수국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창조본때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그가운데는 2.8직동청년탄광, 순천화력발전소,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문천시식료공장 당조직도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혜산강철분공장,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서포청년역, 평양가방공장, 청천일용필수품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에서 증산돌격운동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였다.

당조직들은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혈맥이 되고 일심단결의 성새를 받드는 성돌이 되자.

이것이 올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더욱 높이 내세운 신념의 표대였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불사신들로 키워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신포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던가.

참으로 올해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충정으로 받드는 우리의 일심단결,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한 자랑찬 승리의 한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조시키며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앞당기자.

바로 이것이 뜻깊은 올해 전당의 당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간직된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이해의 첫아침,

온 나라 가정들에,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일군들의 가슴마다 뜨겁게 새겨졌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의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멸사복무의 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틀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올해 봄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군소재지도로포장공사를 끝낸 장진군당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수십년세월 미처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도로포장공사였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이라도 줄세라 50명의 돌격대원들과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로 결사전을 벌려 단 28일동안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던 도로가 이제는 그들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되였다.

어찌 이곳 당일군들만이랴.

예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로 읍지구의 수도관이 얼어든 지난 2월 책임일군의 《폭풍!》구령에 따라 3일간 결사전을 벌려 읍지구 주민세대들에 맑은 물이 흘러들게 한 세포군당위원회 일군들, 올해 수십동의 아빠트를 건설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직접 설계가, 시공주가 되여 완공한 성천군당위원회 일군들…

온 한해 멸사복무의 주로를 따라 힘차게 달려온 당일군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있다.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경성군에 건설할 대규모남새온실농장부지를 돌아보시며 함경북도 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신분,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물들을 밟아보시던 8월의 그날 더운 김 피워올리는 옹솥구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던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멸사복무의 세계를 귀감으로 삼은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한 일에서의 한치의 양보는 전사의 량심에 앉은 티와도 같았다. 바로 그래서 단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새로 건설한 은덕원 수영장의 맑은 물에 단 한점의 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지니고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급속려과기를 제작설치함으로써 인민의 얼굴에 한줄기 구김살도 없게 한것이며 내금강협동농장 살림집건설장에 나간 금강군당책임일군은 농민들의 생활습성을 헤아려 창문도 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였고 밤길에 발을 헛디딜세라 울타리우에 야외등을 설치하도록 다심한 어머니의 정을 기울인것이다.

인민은 하늘이고 스승이다. 뿌리처럼, 흰눈처럼, 초불처럼 자신을 깡그리 바쳐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참된 충복이 되자!

바로 이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충만된 이해를 총화하며 온 나라의 당일군들이 다시금 심장에 새기는 맹세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세차게 타오른 3대혁명의 불길

올해 전국적으로 491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

뜻깊은 올해 각지 당조직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와 회명혁명사적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오석산화강석광산, 대동강축전지공장 수지합지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을 비롯한 491개의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더욱 세차게 휘날리게 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구현해오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승의 기치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최후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전개해나가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켰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짤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올해에 련합기업소의 내화물직장과 로루직장이 2중3대혁명붉은기를, 동력보수직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2.8직동청년탄광 공무직장, 순천화력발전소 자동화직장, 덕천탄광기계공장 소재직장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기술혁명수행에서 큰걸음을 내짚을수 있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또한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과학, 교육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도 강화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선흥식료공장, 강원도정보통신국, 한천수산사업소,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당조직에서도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보다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충정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류원신발공장, 개성타올공장, 서성피복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잘 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그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게 하였다.

이밖에도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수안군농기계작업소, 강계렬차승무대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당조직에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수행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자기 단위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이 자랑찬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각지 당조직에서는 우리 당의 높은 뜻대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기층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행단위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입니다.》

사상전의 힘찬 포성으로

올해 수많은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가 경제건설대진군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의 기본전투단위,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구분대인 초급당조직들이 사상전의 포성으로 경제건설전반에서 해당 단위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수행하였다.

금속공업부문의 초급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여 그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리였다. 실천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직한 김철, 황철을 비롯한 철강재생산을 맡고있는 여러 련합기업소안의 초급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최대로 증대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초급당조직들이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2.8직동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탄부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원산구두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비롯한 평도업적단위 초급당조직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생산을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적극 활용하는데 생산장성의 예비가 있고 당정책관철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초급당조직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짜고들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고안으로 자기 단위 혁명과업수행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올해는 초급당조직들이 포병의 화력중대처럼 위력한 사상전의 포성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격동적인 해였다.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

올해 당세포들의 역할도 비상히 높아졌다.

전당의 당세포가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전투단위로서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수많은 당세포가 충성의 세포대렬에 들어서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만리마시대 첫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지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 당세포에서 올해에 당원들과 광부들을 불러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의 광석생산목표를 돌파하도록 함으로써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

그들의 투쟁기풍, 투쟁본때를 본받아 전국의 당세포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 당세포에서는 갑자기 터진 석수로 굴진을 멈추어야 할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지만 당앞에 걸의 다진 전투목표는 한치도 어길수 없다고 하면서 석수가 비오듯 쏟아지는 막장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 년간 굴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주인된 자각을 안고 평도업적단위 협동농장의 당세포들이 올해 고온현상으로 최악의 조건이 조성되였지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는 당세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는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수천건의 기술혁신과제 수행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한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수천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3대혁명전위들의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사업을 중시하고있으며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올해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과 3대혁명소조파견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소조원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갈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돌파전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심화된 결과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기술혁신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졌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견인불발의 투쟁정신과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본때로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기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전위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등 기계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우리의 자강력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협동벌들에 전투좌지를 정한 3대혁명전위들도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들이 되여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실천적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들만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세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자랑찬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리춘식

서부지구 탄전을 들끓게 하는 화선식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

탄부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불러일으켜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 예술선전대원들

화력탄보장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집중경제선동이 전례없는 규모로 힘있게 진행되여 탄부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전투장마다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며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제선동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서부지구의 탄전들에 달려나가 일제히 경제선동의 포문을 연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의 예술선전대원들은 석탄증산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자신들도 한몫하겠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만수대예술단,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경제선동대원들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을 순회하면서 힘있는 화선선동활동으로 탄부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예술인들은 혼성중창 《우리는 만리마기수》, 남성독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를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종목들과 남성독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녀성독창 《정일봉의 봄맞이》, 《철령아래 사파바다》, 《희양넘리리》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민족적인 정서가 넘쳐나는 종목들로 매일 2차이상 로력혁신자들을 축하하는 공연활동을 진행하여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은 요술 《유리속의 주패찾기》, 《병제주》, 만담 《잘 모시자》 등을 경제선동공연무대에 펼쳐 탄부들과 가족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었다.

지하전초병들의 일터마다에 새로운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경제선동대원들도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을 순회하면서 탄부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선동활동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남성4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남성독창 《사랑의 빛발》,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혼성중창 《조국찬가》, 녀성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라오르라 우등불아》, 재담 《믿지 말자요》, 희극교예 《겸시제주》, 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예술인들이 펼친 공연은 탄부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청년중앙예술전대와 철도예술선전대의 경제선동대원들도 풍부한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기백있고 참신한 화선선동활동을 맹렬히 진행함으로써 순천지구와 득장지구의 탄광들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집중경제선동활동을 벌리는 기간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의 예술선전대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탄광지구의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 로력혁신자들의 가정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도 안겨주었다.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의 공연을 본 서부지구 탄전의 일군들과 탄부들, 가족들의 반영이 대단하다.

탄광일군들은 힘있는 공연,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 공연이다, 화려한 극장무대를 여기에 통채로 떠옮긴것만 같다, 석탄증산에로 부르는 당의 뜻을 더 깊이 새겨안게 되였고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매 종목마다에서 느꼈다고 하였다.

조양탄광의 한 채탄소대장은 노래 《정일봉의 봄맞이》를 배우가 부르기 전에 소개자가 하던 말이 정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사회주의강국의 봄을 먼저 알리는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당부를 간직하고 올해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빛내여달라고 한 소개자의 말을 듣고보니 석탄증산으로 당과 조국을 역세계 받들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하였다.

서창청년탄광의 한 굴진공도 막장을 떠받들고있는 동발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번영의 역센 기둥이 되겠다, 우리가 캐내는 석탄 한톤한톤이 사회주의불빛을 더 밝게 하는 귀중한 재부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돌격전에서 지하의 전초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의 예술선전대원들이 생산현장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진행하고있는 화선식경제선동활동에 의하여 서부지구의 탄전들이 들끓고있다.

화력탄보장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는 가운데 석탄산이 점점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막장을 뒤흔드는 명중포화

—체육성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모든 선동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공세를 벌이대는것이 중요합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 전투과지를 정한 체육성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막장을 뒤흔드는 명중포화를 계속 들이대고있다.

인민의 당부로 새겨안게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기동예술선동대 방송원의 맑은 목소리가 조양탄광의 대기를 헤가르며 창창하게 울려퍼지고있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여기 조양탄광에서 월봉갱, 청년갱에 뒤이어 3갱을 비롯한 여러 갱에서도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

방송원은 매일 갱들의 하루 석탄생산실적을 지녁시간에 알아보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 성과를 알려주며 탄부들의 경쟁의욕을 높여주고있다.

조양탄광의 탄부들은 기동예술선동대 방송원의 구두선동을 더 많은 석탄을 캐낼것을 바라는 인민의 당부로 새겨안는다고 한다.

그럴수록 방송원은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구두선동을 인민의 당부로 새겨안도록 더 실감있게 하겠다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탄광의 제일 어렵고 힘든 막장들에서 경제선동도 하고 막장오락회도 자주 진행하여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는것과 함께 그들의 일손도 적극 도와주고있다.

돌을수록 힘이 나는 노래를 불러준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버력을 실어 운반한 다음 석탄운반작업에서도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이들의 소행을 두고 월봉갱 탄부들은 저저마다 감동되여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막장의 새로운 혁신자들

《나이도 어린 동무들인데 어디서 저런 힘이 샘솟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막장에 새로운 혁신자들이 생겨나니 석탄생산실적이 부쩍 오릅니다.》

신심을 더해준 체육소식

화선선동을 할때마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어떻게 하면 선동의 실효를 더 높이겠는가에 대하여 왼심을 썼다.

그리하여 얼마전부터는 탄부들에게 올해에 진행된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거두게 된 구체적인 사연을 공연이 끝난 다음에 구수하게 이야기해주었다.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어떻게 훈련해왔는가를 들려줄 때마다 탄부들은 큰 힘을 얻군 한다.

탄부들은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날린 우리 체육인들의 소식을 들으며 석탄전선은 우리가 맡겠으니 념려말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한전호에 선 마음

▷출판지도국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을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출판지도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석탄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 하루에도 5차례의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갱입구를 장식한 꽃다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개천탄광 류동갱입구에서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한가지 난감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였다.

류동갱의 탄부들이 날마다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데 안타까운것은 로력혁신자들에게 매일 안겨줄 축하의 꽃다발이 모자라는것이였다.

사실 경제선동준비를 하면서 꽃다발을 많이 준비해가지고왔지만 탄부들이 누구라없이 혁신자여서 10여일나마 경제선동활동을 하게 되면 그들모두에게 안겨줄 꽃다발이 모자라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때 대장 오일남동무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한가지 의견을 제기하였다.

《모두가 혁신자인데 우리 차라리 꽃다발로 갱입구를 멋있게 장식하는것이 어떻겠소? 갱의 전체 탄부들을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말이요.》

그의 제기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전적인 찬동을 받았다.

하여 갱입구는 100여개의 꽃다발로 장식되게 되였는데 탄부들은 그것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맨 앞장에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해달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당부로 새겨안았다.

운반갱에 울려퍼진 노래소리

류동갱입구를 100여개의 꽃다발로 장식한 다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그 주변에 미리 준비해온 붉은기도 10여개나 꽂아놓았고 직관관들도 새로 설치하였다.

전투속보로 쓸 많은 종이를 탄광에 넘겨준 이들은 로력혁신자들을 축하하는 직관선동도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류동갱에서의 경제선동을 마친 이들이 운반갱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 탄광일군들은 거기로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하니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류동갱에서 경제선동을 한것만도 고맙다고 하면서 탄광일군들이 거듭 만류하였지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결심을 막을수 없었다.

당시 대원 리철서동무는 열이 몹시 나는 상태였다.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그에게 대장은 숙소에 남을것을 권고하였다.

《탄부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 있지 않을바에야 제가 왜 평양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도 운반갱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몸이 불덩이리같이 달아올랐건만 자기 건강은 생각지 않고 석탄증산을 위한 탄부들의 투쟁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은 모든 대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얼마후 이들의 노래소리는 운반갱에서도 높이높이 울려퍼졌다.

본사기자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 평안남도의 각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여러 단위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 여러 탄광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 나간 평안남도의 각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청봉탄광에 나간 맹산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혁신자축하방송과 입갱전 경제선동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여러 갱에서 물도랑정리와 운반선로정리작업을 도와주어 탄부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월봉탄광에서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를 비롯한 다채로운 곡목들로 출근길경제선동과 입갱전 경제선동을 진행하고 운반갱에서 탄부들의 석탄하차작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덕성탄광에 나간 녕원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예술소품공연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성의껏 준비한 식료품들과 로동보호물자들을 탄부들에게 안겨주며 그들이 더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고무해주었다. 덕천시 승리동녀맹예술선동대원들과 억전동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제남탄광으로 달려나가 탄부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겨주면서 입갱전 경제선동을 하여 그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었다.

각지 탄광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현지에서 경제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평대탄광, 조양탄광, 개천탄광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전진하는 사회주의》, 《사랑하자 나의 조국》,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과 춤들등으로 출근길에 오른 탄부들과 막장으로 들어가는 탄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남덕청년탄광, 득장청년탄광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취주악공연과 혁신자축하공연, 방송선전차활동 등으로 탄부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전의 힘찬 북소리를 울리고있는 이들의 경제선동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공연준비에 품을 들인 보람

유원지총국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입니다.》

유원지총국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에 달려온 첫날부터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탄전을 들썩하게 하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인포청년탄광의 1갱, 2갱, 청년갱, 5갱에서 경제선동도 하고 로력혁신자들에게 성의있는 지원사업도 매일과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 탄부들속에 제대군인탄부들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준비한 목록외에 제대군인탄부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화선선동을 더 참신하게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공연소개를 맡은 박승옥동무는 선동의 실효를 보다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탄부들이 어제날 병사시절에 세운 위훈과 새 기적창조의 열망으로 불타는 그들의 지향을 곡목소개에 앞서 진행하는 구두선동에 반영하였다. 60살을 가까이하는 소개자가 제대군인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진정이 탁긴 방송원고를 밤새워 쓰고 화술형상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모습은 젊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악조와 기악조성원들도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조국과 나》,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비롯하여 제대군인탄부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공연종목에 추가로 더 포함시키고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련습하고 또 련습하였다. 서로서로 형상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보아주며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는 과정에 이들은 짧은 기간에 형상을 완성하고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제대군인탄부 안해들의 심정도 반영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직동명의 승리망아》, 《우리 집사람》을 비롯한 민요풍의 노래들도 새로 준비하여 공연무대에 올렸다.

매일 여러차례의 경제선동활동을 벌리는 긴장한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새 곡목들을 준비하여 공연활동을 보다 이채롭게 하니 탄부들과 안해들이 무척 좋아하였다.

《차암기를 잡을 때마다 추억깊은 노래의 선률이 생각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과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앞에 자신을 세워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석탄을 캐내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남편들을 도와 흙먼탄수집도 로반정리작업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공연준비에 품을 들인 보람은 이렇게 컸다. 유원지총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욱 분발하여 탄부들과 그 안해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쉬임없이 벌려나가고있다.

리은정

증산투쟁의 앞장에 선 혁신자들을 축하해주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
—평대탄광에서—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5일 리상원 세이망조선초중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열화같은 동포애, 민족애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가꾸어주시고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전국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

전국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4일과 5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일용품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금속재료분과, 무기재료분과, 유기재료분과, 복합재료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금속, 화학재료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반영한 130여건의 론문과 100여종의 전시품이 출품되였다.

발표회에서는 《거대자기완전저항효과를 리용한 자기수감부재료》, 《복합미량합금화한 변속기치차용재료》, 《그라펜복합재료와 응용》, 《물리아미드에 의한 엉아피복재료제조》 등의 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탈곡기칼날재료》, 《고순도전기석분말》, 《화강석건식세척제》를 비롯한 전시품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기간 첨단재료에 대한 연구와 그 응용, 개발전망과 관련한 강의와 록화편집물시청도 있었다.

발표회 및 전시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우리 나라 대표단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4차회의에 참가하고 귀국

외무성 부상 박명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4차회의에 참가하고 5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이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외무상 리용호동지는 4일 대통령궁전에서 바샤르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리용호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은 최근 조선반도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정치와 원칙적립장, 신속성있는 대외정책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각하께서 수리아인민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수리아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언제나 성원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어기에는 수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문정남동지와 알리드 알 무알림 내각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 수상을 만나고 내각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과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외무상 리용호동지는 4일 이마드 하미쓰 내각수상을 의례방문하고 알리드 알 무알림 내각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의례방문과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의 깊은 관심속에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새 세기와 변화된 국제정세의 요구에 맞게 쌍무관계를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얼마전 제가 의식을 잃은 아들을 업고 장연군인민병원에 들어섰을 때는 깊은 밤이였습니다.

이미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있던 의사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달려나와 긴급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들의 병명을 알았을 때 사실 어머니인 저로서도 손맥이 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의료일군들은 저에게 꼭 아들을 살려내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주며 치료전투에 진입하였습니다.

소아과 과장 정윤철선생님을 비롯한 과의 의료일군들은 아들의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상태를 관찰하며 대책을 세웠고 고열로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기 위해 밤낮으로 얼음찜질을 하였습니다.

이들뿐아니라 병원의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아들의 담당의사가 되여주었습니다. 그 정성에 떠받들려 제 아들의 병세는 나날이 호전되여갔습니다.

지금 공부도 뜀박질도 잘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 어린 생명을 위하여 그처럼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젖어들군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건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장연군 화원로동자구 백명옥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 도착

알라에딘 보루제르디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성원인 대외경제성 부상 리광근동지와 제에드 모흐쎈 에마디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산골마을의 양어자랑

송원군 송관리를 찾아서

송판리는 송원군 읍으로부터 100리나마 떨어진 두메산골이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은 고장이라고 하여 송판이라 불리워온다는 마을, 사방 높고낮은 산들로 둘러막혀있는 그 산간오지에서 양어의 덕을 보고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하여 우리는 얼마전 그곳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급이급이 험한 령길을 넘어 마을에 도착하니 리의 한 일군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그 일군은 싱글벙글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우리 마을이야 양어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지요.》

일군의 말에 의하면 양어분조에서는 한해에 룡정어, 금잉어를 비롯한 수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키워 도안의 여러 시, 군에도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수천마리의 물고기를 길러 마을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것이였다.

산골마을의 자그마한 양어장에서 많은 새끼물고기를 키운다는 일군의 자랑을 들으며 우리는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이윽고 우리는 양어분조에 이르렀다.

살얼음이 덮게 짤린 양어못에서 유유히 오가는 많은 물고기를 호뭇하게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다.

《이 동무가 제대배낭에 미꾸라지를 가지고왔던 분조장 김최식동무입니다.》

일군이 그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양어에 무척 조예가 깊은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얼굴을 붉히던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그를 양어에로 이끈것은 한권의 소설책이였다. 그것이 바로 1960년에 창작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애독된 단편소설 《길동무들》이였다. 그는 담수양어를 하기 위해 물고기들이 들어있는 초롱을 들고 뛰여다니는 주인공의 형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늘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향땅을 아름답게 가꿔가리라 마음다지며 자란 그였기에 제대를 앞둔무렵에는 더욱 생각이 많았다. 해를 묻고 나서자란 송판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며칠밤을 모대기던 그의 머리속에 무엇인가 갑자기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양어를 발전시키라는것은 당의 뜻이 아닌가. 소설의 주인공처럼 나도 고향땅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리라.)

이렇게 되여 김최식동무는 여러곳에 부락하여 얻은 수많은 미꾸라지를 제대배낭에 넣어가지고 고향땅으로 왔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였다.

그는 직심스레 미꾸라지를 키우며 양어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갔다.

양어를 본때있게 해보려는 그의 결심을 리당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지해주었다.

얼마후 마을에는 여러개의 못을 가진 양어장이 일떠섰고 김최식동무를 분조장으로 하는 양어분조가 조직되였다. 그의 안해도 남편을 도와 양어공이 되였다.

양어못에 먹이를 뿌려줄 때마다 물면우로 솟구치는 물고기들을 보는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그러나 물고기를 키우는 일이 늘 기쁨과 랑만속에 흘러간것은 아니였다. 수백리 먼길을 걸어 애써 구해온 새끼물고기들이 한번에 수십마리씩 죽을때도 있었다. 그때 그들은 양어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양어지식을 습득해갔다.

그들에게 있어서 새끼물고기는 고향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행복의 씨앗이였다.

그들은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물물내 물고기의 인공수정과 알받이, 알깨우기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데도 성공하였다.

이렇게 키운 물고기들이 군의 경계를 벗어나 도의 여러곳으로 옮겨가게 되였고 마을의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을 더해주었다.

마을의 어느 가정에서나 결혼식을 비롯한 대사가 있으면 그 상에는 어김없이 양어장에서 기른 물고기가 오르군 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물고기를 맛보자면 지 류든명을 넘어가야 했다지만 이제는 앉아서도 생선맛을 보게 되였으니 세월이 참 좋습니다.》

지난날 땅이 하도 척박하여 자랑거리라면 나무와 물밖에 없었다던 송판리에 오늘은 양어자랑이 불려났으니 어찌 이것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절로 차례진것이라고 하랴.

이것은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송판리의 사람들이 제손으로 마련한 소중한 행복의 열매였다.

우리는 나날이 늘어나는 자랑과 함께 더욱더 윤택해질 산골마을사람들의 생활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신 철

온천수영장에 넘치는 기쁨

은천군 은덕원에서

얼마전 온천군을 찾은 우리는 읍지구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은덕원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온천물의 효과성에 대하여 쓴 안내판의 글줄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알고보니 이곳 은덕원에서는 유명한 온천온천을 인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효과있게 리용하고있었는데 날마다 이곳으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길새없이 이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약수와 온천들을 다양하게 리용하여 병치료도 하고 예방사업도 대중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배인 박창애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2층으로 되여있는 은덕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온천물을 리용한 난방보장체계가 갖추어져 겨울에도 훈훈한 리발실, 미용실과 온천물이 쉬임없이 흘러드는 목욕실들…

우리는 이곳 편의봉사기지에서 적극 리용되고있는 온천온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깊은 땅속에서 나는 온천온천은 물온도가 85~88℃이며 여러가지 이온들과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피부병과 만성기관지염, 외상 및 수술후유증, 부인병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수십년전 온천물을 리용할수 있는 편의봉사기지로 일떠선 은덕원에는 지난해 건인치료실과 부인병치료실은 물론 넓은 면적의 수영장까지 갖추어져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산뜻한 색갈의 타일들로 단장된 온천수영장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이 수영장은 땅속에서 나는 온천물과 찬물을 넣을수 있는 관들이 따로따로 설치되여 물온도를 알맞춤히 조절할수가 있어 여름철에는 물론 겨울철에도 봉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한다.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수영장에서는 마침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며 수영을 하고있었다.

좋아라 물장구를 치며 놀고있는 아이들, 여러가지 수영동작으로 물을 헤가르며 나아가는 청년들과 나이지숙한 사람들…

지배인은 우리에게 이 수영장은 사시장철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고, 하루일을 마치고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농장원들과 사무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읍지구와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멀리 타고장사람들도 찾아오고있는데 이 수영장을 리용한 사람들 누구나 더 많은 일을 할 결심들을 토로하군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온천수영장에 넘치는 웃음소리, 그것이 어찌 자연의 혜택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하랴.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오랜 세월 땅속에서 잠자던 온천물도 인민의 웃음꽃을 피우는 재부로 된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건일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 있다. —농업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진평 찍음

로동자요술사의 진정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오광민동무

얼마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대한 위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떠들썩한 웃음소리, 박수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한 로동자가 작업의 쉴참에 사람들앞에서 간단한 생활도구들을 가지고 흥미있는 요술의 세계를 펼쳐보이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자력갱생직장 세멘트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오광민동무였다.

뜻밖의 장소에서 《요술공연》을 보게 된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동행한 일군이 말하였다.

《오광민동무는 작업반뿐만 아니라 련합기업소적으로도 〈요술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전국도대항요술경연에서 저 동무가 준비한 기능요술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군의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문요술배우도 아닌 평범한 로동자가 기능요술종목에서 평가를 받다니…

우리는 한시바삐 로동자요술사를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오광민동무에게 처음으로 요술을 배워준 사람은 그의 형이였다. 광민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의 형은 한때 요술배우였다고 한다.

광민동무는 15살때부터 요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마당에서 자주 요술무대를 펼쳐놓아 모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의 요술은 군사복무시절에는 중대의 자랑으로, 제대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배치받은 후에는 로동자들의 자랑으로 되였다.

요란한 장치나 기계가 없이도 로동생활의 랑만과 열정을 생동하게 담은것으로 하여 광민동무의 요술은 언제나 대중속에서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군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광민동무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워주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요술강습에 참가하도록 해주었고 전국적인 요술경연무대에도 내세워주었다.

지난 10월 오광민동무가 전국도대항요술경연에서 상장을 받고 돌아온 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물론 그가 사는 인민반에서도 그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행복한 그 순간에 오광민동무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이야기를 마치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재능의 나래를 펼쳐주고 걸음걸음 이끌어준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행복을 꿈인들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로동자요술사의 마음속진정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평범한 로동자도 인민의 사랑받는 시인이 되고 요술사가 되는 자랑찬 현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정영철

영예군인대학생과 청년문학상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 전성철동무의 생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품이며 록슬보다 귀중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잡지 《청년문학》과 더불어 독자들과 친숙해진 한 청년이 있다. 청진시 신암구역 근화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전성철동무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이기도 한 그는 잡지 《청년문학》에 많은 시들을 써낸것으로 하여 영예군인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영예군인메달속의 별》, 《심장의 고백》, 《전설과 전쟁》, 《래일이 어떻게 달려오는가》…

하다면 그 시들은 어떻게 태여났던가.

어려서부터 남달리 시를 사랑한 전성철동무는 군사복무의 나날 자주 자작시를 지어 전우들앞에서 읊군 하였다고 한다. 그때마다 전우들은 전성철동무를 두고 앞으로 꼭 훌륭한 시인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인이 되는것은 전성철동무의 소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이 어떻게 시대를 편답하며 심상에서 쓴 시가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단 말인가.

고향으로 돌아온 전성철동무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더 아팠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로동신문》에서 한 영예군인시인의 경계를 벗어나 도의 여러곳으로 옮겨가게 되였고 마을의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을 더해주었다.

마을의 어느 가정에서나 결혼식을 비롯한 대사가 있으면 그 상에는 어김없이 양어장에서 기른 물고기가 오르군 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물고기를 맛보자면 지 류든명을 넘어가야 했다지만 이제는 앉아서도 생선맛을 보게 되였으니 세월이 참 좋습니다.》

지난날 땅이 하도 척박하여 자랑거리라면 나무와 물밖에 없었다던 송판리에 오늘은 양어자랑이 불려났으니 어찌 이것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절로 차례진것이라고 하랴.

이것은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송판리의 사람들이 제손으로 마련한 소중한 행복의 열매였다.

우리는 나날이 늘어나는 자랑과 함께 더욱더 윤택해질 산골마을사람들의 생활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신 철

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였다. 영예군인의 삶을 꽃피워준 고마운 제도에 대해 구가한 낯모를 영예군인의 시줄이 전성철동무의 가슴을 찌릿하게 해주었다.

전성철동무는 생각에 잠겼다. 고향에 돌아서면 날 영예군인메달을 쓸고 또 쓸며 조국을 위해 장한 일을 하였다고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던 모교의 선생님들과 마을사람들, 혈육처럼 지내자며 힘과 용기를 주던 사람들과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알게모르게 와닿군 한 당의 사랑과 온정…

(기사의 주인공도 영예군인이고 나도 영예군인이다. 하지만 두 영예군인의 삶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호되게 질책하던 전성철동무는 보풀이 인 시집을 펼쳤다. 보람찬 병사시절을 담았던 그 시집에 정법한 영예군인의 길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감동깊은 생활도 함께 담고싶었다.

하여 그는 얼마후에 시초 《나의 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창작하게 되였고 그 작품이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 당선되게 되였다.

그때부터 전성철동무의 시창작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시안의 전투장들치고 그가 세바퀴차를 타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창작을 도와주러 평양에서부터 작가들이 찾아왔고 시창작에 도움이 되라고 많은 책들을 안고 구역당위원회일군들과 함경북도인민보안국의 인민보안원들도 찾아왔다.

그는 쉬임없이 시를 썼다. 그가 쓴 한편한편의 시는 영예군인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얼마후 그는 전국청소년학생문예작품현상모집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고 4.15총상의 만경대창작상까지 수여받게 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배움의 열망을 헤아려 주체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해주었다.

영예군인대학생이라고 원격교육대학에서는 남달리 관심하며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과서들과 참고도서들도 선참으로 보내주었고 지도교원들도 자주 찾아와 그의 학습을 방조해주었다.

그런 사심없는 진정속에 전성철동무는 여러해동안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게 되였다.

그 기쁨, 그 자랑은 그가 쓰는 시에 그대로 옮겨졌다. 지난해에는 시 《심장의 고백》을 잡지 《청년문학》에 내여 청년문학상을 받는 영예도 지니였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전성철동무는 최우등성적증과 날마다 늘어나는 상장들을 펴놓고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이렇듯 아름다운 삶을 안겨준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입니다. 그 품이 아니라면 영예군인이라는 그 부름을 오늘처럼 빛내일수 없었을것입니다.》

영예군인대학생과 청년문학상.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 현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오은별

우편가방을 메고 30여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당이 맡겨준 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속에는 은률군 장련제신분소 우편통신원 조명재동무도 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군제신소에 배치되여 통신설비를 맡아 관리하던 조명재동무가 자진하여 장련제신분소 우편통신원으로 일한지도 30여년이 흘렀다.

그 나날 그가 우편가방을 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 걸은 통신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조명재동무는 우편통신의 길을 멈춘적이 없었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우편통신원의 걸음은 순간도 지체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였다.

몇해전 1월초 어느날이였다.

뜻밖의 일로 당출판물이 밤늦게 분소에 도착하였다.

그때 분소에 남은 인원이란 분소장과 교환수, 조명재동무뿐이였다. 분소장이 어떻게 어려 리를 두 사람이 들며 당출판물을 배포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미 퇴근한 우편통신원들에게 련락을 띄우려고 할 때였다.

조명재동무는 인민들이 당출판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급직한 우편가방을 메고 눈보라치는 길에 나섰다.

이렇게 온밤 통신길을 이어간 조명재동무가 새벽녘에야 눈사람처럼 되여 집에 들어서면 일을 그의 가족들은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조명재동무도 한 가정의 세대주이고 자식을 가진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우편통신원의 일을 언제나 가정일 우에 올려놓고 살아왔다.

그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였다. 한창 당보를 비롯한 우편물을 부리우면 분소의 종업원들은 허둥지둥 달려오는 조명재동무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편물이 도착했다기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무랑하자 조명재동무는 말하였다.

《나야 우편통신원이 아니요.》

이렇게 그는 수십년세월 단 하루도 자기의 초소를 비운적이 없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안고 당이 맡겨준 초소를 묵묵히 지켜가는 조명재동무.

이 땅에는 그렇듯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송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수풍호에 서린 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지난날 수십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뿌린 철천지원쑤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는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만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

인두겁을 쓴 극악한 살인마, 식인종무리

태평양전쟁시기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남태평양의 마살군도에까지 끌어다 비행장활주로건설공사에 내몰았다. 조선사람들은 맹폭격과 함포사격속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일제의 보급로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전후에 일본에서 제작상영된 예술영화들과 각종 도서들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소가죽허리띠와 구두를 삶아먹었다.》고 한것이 바로 이때의 일이다.

어느날 놈들은 《고래고기》가 생겼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에게 먼저주었다.

그런데 그즈음 섬에서 살점이 떨어져 잔혹하게 살해된 조선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일제놈들은 그들을 살해하고 도려낸 살점을 《고래고기》라고 했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사람들이 분격하여 들고일어나자 놈들은 그들에게 물사격을 퍼부어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때 일부 조선사람들은 야자나무우에 피신해 간신히 목숨을 건지였는데 이들의 증언으로 하여 이 사건은 력사에 공개될수 있었다.

살아서는 놈들에게 피와 땀을 짜그리 빨리우고 죽어서도 야만들의 배를 채워주어야 했던 조선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은 일본군성노예로 끌려온 녀성들에게도 차례졌다.

일제침략군의 한 사단이 보급로가 끊어져 기아상태에 빠지게 되였을 때였다.

그때 사단장놈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라도 목숨을 이을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사람고기를 먹자니 누가 누구의 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살기로 번득이는 놈들의 눈길이 성노예로 끌려온 녀성들에게 가닿았다.

일제야수들은 그들을 향하여 미친듯이 달려들어 총창으로 찔러죽이였으며 그들의 살을 일본도로 토막내고 저며내여 나누어먹었다.

일본군 보병 제144련대에서 복무한 니시야마 고기찌는 《1942년 7월 뉴기니아섬에 진출할때 대한 명령을 받고 식량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80여일의 밀림행군을 하던중 우리는 〈성위안〉을 위해 데리고다니던 〈위안부〉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군도로 각을 떠 뜯어먹었다.》고 고백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징용자들과 성노예들은 물론 징병으로 강제련행하여 저들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던 조선인군속들까지도 수많이 잡아먹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일제놈들에게 군속으로 끌려가 갖은 학대를 다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로인은 일제야수들이 자기 동료들을 잡아먹은데 대한 사실을 이렇게 회억하였다.

담배를 무척 피우고싶었던 조선사람들이 일본놈들이 담배를 판다는 말을 듣고 그놈들의 방공호로 찾아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후에 일본놈들이 그들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후 일본군이 《통졸임》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인즉 조선사람들을 죽여서 만든것이였다.

당시 일본군이 조선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조선사람의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의 식인행위를 조사해온 일본의 정치학교수 다나까 도시유끼는 자기의 선대들이 랭동시설이 없었던 조건에서 《인육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사람을 살려둔채 매번 먹으려만큼씩 살점을 잘라내여 먹는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자료를 발표하였다.

실지로 일제는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청년들을 비롯해서 붙잡힌 교전국의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살을 도려내여 료리해먹고는 반쯤 살아있는 상태로 두었다가 하루이틀이 지나 내장을 도려낸 후 남은 사람고기를 마저 먹었다고 한다. 일제식인종들은 될수록 오래동안 《식량》을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것이다.

일제패망후 그와 판련하여 증언한 목격자들은 《살을 베여낼 때 그들은 무서운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나 그 비명소리는 사람이 죽어갈수록 점점 약해졌다.》라고 하면서 일제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분노를 표시하였다.

일제야수들은 이처럼 인두겁을 쓴 극악한 살인마, 피에 주린 식인종무리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그러나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것은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철천지원쑤이며 지금 이 시각도 그 후예들이 지나간 력사를 되풀이하기 위해 침략의 칼을 버리고있다는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유광진

우리는 얼마전 평안북도계급교양관을 찾았다. 도계급교양관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붐비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어려있었다.

관장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해방전 수풍발전소언제공사장에서 감행한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자료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일제는 수풍발전소언제공사장에서도 인간백정의 야수적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놈들은 언제공사에 앞서 3 000명의 사망신고서까지 만들어놓았다. 공사장에는 로동보호시설이라는것은 하나도 없었다. 놈들은 언제기초파는 조, 뢰들을 대는 조, 모래, 자갈을 혼합하는 조, 혼합물을 나르는 조 등 여러조로 나누어 일을 시켰다. 로동보호시설이 없는데서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뒤섞여 일을 하다나니 자동차에 치이고 전기줄에 붙어 죽고 굴속에 묻혀 무리로 죽는 끔찍한 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하지만 놈들은 《언제공사에는 사람의 뼈가 들어가야 한다.》고 줴치면서 로동자들을 고의적으로 콩크리트혼합물에 집어넣고 타입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관장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일제야말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이며 일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하고 천백배로 복수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특파기자 송창윤

대학에서의 결의에 넘쳐있다. —김형직사범 우리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져나갈 본사기자 찍음

그리움과 칭송의 목소리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나는 김정일각하의 위대하신 풍모에서 하늘이 낸 성인의 인정세계, 태양의 천품을 보았다.》, 《김정일명도자이시야말로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에 감복된 세계 진보적인류가 심장으로 터친 위인칭송의 목소리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장군님의 권위는 이 세상 최고입니다.》

우리 장군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며 력사발전을 주도하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세계의 수많은 벗들이 생의 활력과 희열을 되찾았다.

그들속에는 로씨야의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지도자 니나 안드레예바도 있다.

니나 안드레예바로 말하면 자기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1991년에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을 창건한 녀성정치활동가이다.

가정부인으로서 그것도 쏘련의 붕괴를 기화로 혁명의 배신자들이 갖은 박해와 탄압을 가하는 조건에서 당을 조직운영해나간다는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견결한 정치적신념으로 모든것을 이겨내며 당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그만큼 그는 도고한 자존심과 강의한 성격을 소유하고있었다.

그는 우리 나라 방문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차례 만나뵙고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특출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주체88(1999)년 10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니나 안드레예바일행을 여러 시간이나 만나주시였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를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니나 안드레예바가 받아안은 행운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담화에 이어 니나 안드레예바를 위해 만찬회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음식그릇을 당겨 그앞에 놓아주시며 많이 들라고, 남편이 살아있으면 함께 왔겠는데 정말 섭섭하다고 그의 아픈 마음까지 헤아려주시며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를 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드레예바총비서가 명절때마다 축전을 보내왔는데 자신께서는 반제투쟁의 전호속에 함께 서있는 혁명동지인 안드레예바총비서의 축전을 깊은 관심속에 보았다고, 우리는 한배를 탄 동지이므로 생사를 같이하고 서로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믿음이 담겨진 이 무릎앞에서 그는 끝내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후날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나는 그이를 만나뵈오면 뵈올수록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인자한 풍모,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여 가슴이 끓어번지는것을 진정할수가 없다. 그처럼 위대하고 자애롭고 인정깊으신 절세의 위인을 심장을 다 바쳐 흠모하고 따른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니나 안드레예바를 만나실 때마다 그에게 귀중한 혁명적량식을 가득 안겨주시고 때로는 방문기간 여러차례 그의 강연까지 조직해주시며 그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마음쓰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기회에 병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보약까지 몸소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과 믿음, 격려에 무한히 고무되였기에 니나 안드레예바는 오늘도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굽히지 않고 투쟁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고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인 싸쉬 우말라또바도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세계에 무한히 감복된 정치가들중의 한 사람이다.

1999년 2월 싸쉬 우말라또바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직접 만나뵙고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것이 그의 소망이였다.

그러나 지방을 현지지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 평양으로 돌아오실지 알수도 없었거니와 그의 체류일정은 불과 4박5일밖에 되지 않았다.

싸쉬 우말라또바가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조바심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거리전화로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그를 만나주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말라또바일행을 위해 마련해주신 특별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였다.

일행이 도착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말라또바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해주어 고맙다고, 이렇게 먼곳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였다.

특별비행기까지 띄우시여 자기의 소원을 다 풀어주시고도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품에 그는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우말라또바일행과 오랜 시간 담화를 나누신 후 그들을 식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음식을 권하시였다.

식사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이나 찍자고 하시였다.

날씨는 매우 맵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말라또바일행을 념려해주시면서 몸을 움츠리뜨리면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환대를 받고 우말라또바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2015년 12월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에서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말라또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의 전체 당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를 뜨겁게 회고하고있다. 그이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위인에 대한 매혹은 국경을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경모심은 날로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그리움과 칭송의 목소리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길이길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손소연

태양의 빛발아래

절절한 당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던 프랑스의 삐에르 부도카 우리 나라를 세번째로 찾아왔을 때였다.

방문도중 그는 뜻밖에도 이미전부터 앓고있던 난치의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우리 나라에 찾아온 손님이고 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자로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인데 치료하여 병을 고쳐주자고 하시며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하여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보약과 최신의료설비를 리용하며 40여일간의 치료나날을 보냈다. 그에게는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내가 한생을 바쳐 사랑해온 조국인 프랑스는 병든 이 몸에 흔한 주사 한대 거저 놔주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은 나를 한없이 자애로운 품에 안아 육체의 병과 함께 마음속 상처까지 가셔주고있지 않는가. 그렇다. 지금 내가 안겨있는 이 품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조국이며 어머니품이다.)

그후 프랑스에 돌아간 그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에 대해 절절히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자그마한 비를 하나 세워달라. 붉은 대리석에 태양을 그리고 그밑에 오각별을 새겨넣으라. 태양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며 오각별은 태양의 두리에 결속된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의미한다.》

잊을수 없는 순간

《그이께서는 1995년 7월에 나와 우리 일행을 무려 55분간이나 만나주시였다.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접견은 흔히 격식을 차린 공식적인것이 상례이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벗으로, 친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간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꾸밈이 없는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 마음속을 환히 드러내놓는 호탕한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였다. 김정일동지께 매혹된 나는 55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담화가 끝나고 그이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와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나는 온몸이 해빛에 휘싸인듯 한 심정이였다.

태양은 그 누가 설명해주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그 존재자체의 비길데 없는 위대함으로 하여 만민으로부터 칭송되는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진정 태양과 같은분이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으면서 그이의 고매한 인간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여 터친 로씨야의 경제계인사였던 쓸리노브의 격찬이다.

숭고한 사랑의 전설

1981년 7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였던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가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고 자기 조국 인디아로 돌아가던 때에 있은 일이다.

비행기가 리륙하면서부터 그는 심한 배아픔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그의 병은 더욱 악화되여 나중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고빈드가 중태에 빠져 수술을 받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능한 의사를 치료현장으로 급히 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의 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귀중한 약들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병원침상에 있는 고빈드가 멀리 조국에 있는 아들을 몹시 보고싶어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그의 자식을 데려다 아버지를 위로하도록 하시였다. 병상에서 의식을 차린 후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들은 고빈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구우에 인류가 생기고 나라가 생긴이래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력사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외국의 평범한 한 공민을 위해 국경을 넘어 비행기까지 띄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 창조하실수 있는 사랑의 전설입니다.》

본사기자 안철권

보수《정권》의 친일매국행위를 단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화해, 치유재단》은 애초에 해여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일본정부와 박근혜《정권》과의 암묵적결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낱낱이 규명하여 일제만행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일본정부가 재단설립에 《위로금》명목으로 지출했던 10억¥을 당장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설명회를 가진 정의당도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는 박근혜《정권》과 아베정권사이의 야합의 산물외에 다른것이 아니라고 까밝혔다.

이 당 대변인은 일본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를 10억¥으로 해결하려 한것은 전쟁범죄나 다름없다고 성토하면서 민중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은 《합의》는 치욕스럽기만 하다고 개탄하였다.

본사기자

적폐청산의 시대에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

남조선단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보안법》폐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 1일 《국회》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70년전 《보안법》이 《파이혁결》의 명분을 가지고나왔지만 실지에 있어 조선반도를 분렬시켜 지배하려는 외세의 속심에 따라 조작되였다고 말하였다.

이 악법이 그동안 민주세력을 《간첩》, 《좌익》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리용되여왔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반일독립운동가들을 억누르는데 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한 《보안법》의 폐지를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하고있는것은 이 당이 친일정당이기때문이라고 규탄하였다.

《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는 국민모두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악법에 의한 수사를 중지하고 량심수들을 모두 석방시키라고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사상과 량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보안법》이 적폐청산, 새 사회로 나아가려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를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당국까지 여기에 귀를 막아왔다고 회견문은 비난하였다.

회견문은 초불로 교체된 《정권》이 이 악법을 폐지하고 후진성의 불명예를 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지금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더더욱 없게 되였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조선반도 평화시대에 반인권, 반통일악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침열에 들뜬자들의 령토강탈소동

최근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다.

일본 자민당패거리들은 얼마전 《령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령토관련 위원회들의 합동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기구설치, 독도주변해역에서의 조사활동확대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확보대책을 강화할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 다음날에는 초당파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된 극우익정객들과 정부고위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독도는 명백히 일본고유의 령토》라느니,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느니 하는 망발들을 늘어놓았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남조선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고 앙탈질을 해대면서 그 무슨 《항의》와 《재발방지》에 대해 운운하는 심로 뻔뻔스러운것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며 그것을 강탈하기 위해 갖수록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독도는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다.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개척하고 그에 의거하여 생존활동을 벌려왔다.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실로 날강도적인것이다.

얼마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새로 공개되였다.

동북아시아력사재단 독도연구소는 지난 11월 27일에 내놓은 도서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허상》을 통해 일본왕실의 력사학자가 1927년과 1931년에 제작한 지도들에 독도와 울릉도의 소속이 조선이라고 표기되여있다는것을 까밝혔다.

연구소의 한 위원은 일본왕실력사학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된 력사지도에 그와 같이 표기된것은 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였다는 일본당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독도가 력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라는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며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독도강탈책동을 날로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런 끈질긴 도발적망동에 매달리는것은 독도가 마치 령토분쟁지역인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기만하면서 저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재침의 명분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날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우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의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그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에 대해 사죄, 배상할 대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재침열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악과 무력증강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를 먼저 독도에 꽂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에 대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것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흉심이다.

아베패당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책동은 일본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령토강탈과 해외팽창야망실현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의 도발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일본은 남의 땅을 넘보기 전에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끼친 만고죄악에 대해 하루속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단호히 짓뭉개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남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신일본제철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이 있은 이후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판결이 계속되고있다.

11월 29일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정부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강제동원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짓말로 조선청소년들을 군수공장에 끌어가 혹독한 환경속에 위험한 로동을 강요한것은 반인도적불법행위》라고 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 10명과 유가족 1명에게 전범기업측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만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위선적인 행위 규탄

— 화학무기금지기구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최근 기구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협약위반행위를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선택적으로만 리행하고있다고 하면서 화학무기의 보관과 상태에 대한 자료를 기구에 제공하지 않고있는것 등을 그 실례로 들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수리아에 병력을 비법적으로 주둔시키고 저들의 정치적리속에 맞게 활동하는 극단주의그루빠들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그들의 화학테로를 묵인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2일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의 위선적인 행위를 규탄하였다. 미국이 최근 이란정부가 유엔안보리사회결의를 위반하였다고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자체가 결의를 위반하면서도 사실을 오도하고있으며 결의를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러한 초현실주의가 현재 미국의 대외관계방식으로 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세계기상기구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에 우려

세계기상기구가 11월 29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보고서는 올해에 바다물면이 상승하고 바다물온도가 높아지고 산성화가 촉진되였으며 극단적인 날씨로 많은 인적 및 물질적손실이 초래되였다고 밝혔다. 8월에만도 인디아의 서남부지역에서 1920년대이래 최악의 큰물이 들이닥쳐 140여만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540만명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유럽의 대부분지역에서도 례년에 보기 드문 고온현상이 기록되였다.

이스라엘에서 집권층에 대한 사회적불만 증대

이스라엘에서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있는 집권층에 대한 사회적불만이 커가고있다.

3일 이스라엘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현 집권계층이 부정부패를 일삼고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극소수 부유계층이 정부의 활동을 좌우지하고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비률은 54%에 달하였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수상내외의 뇌물행위, 사기협잡 등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경제발전성과

유인우주비행선 발사

로씨야가 3일 바이꼬누르우주발사장에서 《쏘유즈 MC-11》유인우주비행선을 쏘아올렸다. 우주비행선은 《쏘유즈-ФГ》운반로케트에 탑재되여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 한다.

위성 발사

인디아우주연구기구가 11월 29일 스리하리코타에 있는 사티쉬 다완우주센터에서 지구관측위성 《HysIS》와 30개의 소형 및 나노위성을 쏘올렸다. 위성들은 극궤도위성발사체 《PSLV-C43》에 실려 궤도에 진입하였다. 《HysIS》위성은 세계적범위에서의 농업, 산림, 지질환경, 해안지대, 내륙지대의 물자원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오게 된다고 한다.

세멘트 및 크링카 수출 증대

이란에서 올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7개월동안에 765만톤이상의 세멘트 및 크링카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2일 이 나라의 보도수단이 이에 대해 밝혔다.

먹는물문제 해결

소말리아의 북부지역에서 2일 상수도공사가 완공되여 물공급이 시작되였다. 이로써 부라오를 비롯한 4개 도시의 약 80만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먹는물을 보장받게 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현재 전체 주민의 약 70%, 농촌주민세대의 28%만이 깨끗한 물을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새 년도 국가예산 발표

가나정부가 최근 2019년도 국가예산을 발표하였다. 이 나라 재정상은 예산액의 많은 몫이 도로를 비롯한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돌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고기수출 증가

몽골에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4만 3 288t의 고기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식료, 농업, 경공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지오물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

신기한 물분해효소

식품용기와 전자제품생산 및 포장에 널리 리용되는 수지를 분해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분해효소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지는 폐기된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매우 힘든 물질로서 과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생물분해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를 모색하여왔다. 물분해효소의 구조와 분해작용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수지를 분해할수 있는 새로운 효소의 개발리용을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물분해효소의 공업화를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수지오물로 합성물감을 분해처리할수 있는 방법

합성물감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식능력을 파괴하는 독성물질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없는것으로 하여 공업폐수에 계속 섞여나가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이러한 난문제를 해결할뿐아니라 세계적인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수지오물을 처리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새 기술안을 내놓았다.

연구사들은 수지오물을 얼구어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능재료를 만들어냈다.

이 재료는 고체상태에서 유해로운 합성물감을 제거하는데 리용될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가 방대한 량의 수지오물을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전망성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생물분해되는 새로운 수지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수지를 개발하였다. 전통적인 원유제품대신 석회석을 리용한 이 수지는 사람의 유기체에 해롭지 않으며 찬물속에서 몇분동안에 풀린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다른 한 나라의 학자들도 섬유소와 키틴으로 생물분해되는 투명한 재료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이 재료는 현재 쓰이고있는 수지포장재료를 대신할수 있다고 한다.

수지오물을 자동차연료로 전환시키는 방법

과학자들이 수지오물을 자동차에 동력을 보장할수 있는 수소연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수지속에 빛흡수재료를 첨가한 후 알카리용액속에 넣고 해빛에 놓아두면 수지를 수소연료로 전환시킬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수지오물을 사전에 씻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원가가 낮은 수지오물회수방식으로 될것이다고 말하였다.

이것을 공업화하자면 아직 수년이 걸려야 하지만 수지오물처리를 위한 선진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로 될수 있는 진균

100여명에 달하는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완성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가 진균의 천연적인 성질을 리용한다면 합성수지를 몇년이 아니라 몇주일내에 자연분해시킬수 있다.

연구집단은 서로 다른 생물들이 어떻게 합성수지를 분해하고 방사성물질을 처리하며 생물디젤유의 생산을 가속화하는가를 밝혔다. 한 과학자는 합성수지오물이 환경보호에서 얼마나 큰 도전으로 되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만약 진균이 그 해결수단으로 된다면 매우 훌륭한것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식용생물수지재료

일반수지재료를 대신할수 있는 천연수지재료가 개발되였다. 강냉이농마와 사탕, 식물성기름을 리용하여 만들어지는 이 재료는 세계의 모든 포장재료를 완전히 대신할수 있다고 한다.

연구사들이 밝힌데 의하면 종전의 생물수지재료견본들보다 훨씬 든든한 이 재료는 오래동안 사용해도 자기의 성질을 잃지 않으며 높은 온도에 견딜수 있고 15년이 지나서 분해된다. 새로운 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되는 에네르기와 자원은 원유를 리용한 전통적인 수지생산때보다 적다.

생태학적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데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산불

오스트랄리아의 뉴싸우스웰즈주에서 1주일 남짓한 기간 산불이 계속 타번지고있다. 산불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3일현재 52만여ha의 산림이 불타버렸으며 많은 건물이 파괴되였다. 수천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으며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기온이 높은데다가 바람까지 세게 불어 진화작업이 난관을 겪고있다고 한다.

큰물

이라크의 각지에서 최근 큰물피해가 확대되고있다. 2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2일동안 전국적으로 큰물로 인한 사망자수가 2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북부의 니네베호주 소재지 모쑬시와 그 주변지역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으며 도로와 다리들이 파괴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산사태

인도네시아의 북부쑤마트라주에서 2일 산사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산사태로 려관건물이 묻혀 14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에이즈비루스감염자 증가

— 그리스에서 10월초현재 에이즈비루스감염자수가 1만 7 240여명에 달하였다.

이 나라의 질병통제센터는 올해에 들어와 10월말까지의 기간에 540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되였다고 밝혔다.

— 마케도니아에서도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41명의 에이즈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11월 30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혔다.

— 몽골보건당국이 11월 30일 전국적으로 267명의 에이즈환자와 비루스감염자가 등록되였다고 밝혔다.

올해에 들어와 11월까지의 기간에 1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비루스감염자의 약 60%가 15살이상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라고 한다.

— 리비아에서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약 5 000명의 에이즈비루스감염자가 새로 발생하였다.

3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93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